



# “국가가 튼튼해야 종교가 바로 서죠”

### ■신안 자은도 전도대부흥회 강연 장경동 목사

“탈레반에 피랍된 한국인들의 무사 귀환을 촉구하면서 슬픔을 함께 이겨내는 한국인들의 하나 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장경동(대전 중문교회·53) 목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지난 1일 신안군 자은면 자은도에서 만난 장 목사에겐 아프간 피랍 사태와 관련된 질문을 던졌을 때다.

장 목사는 “누구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면서 “소중한 그들의 목숨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했다. 피랍 사태로 인해 해외 선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종교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피랍자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데 전력을 쏟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장 목사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신안 자은도를 찾아 아프간 피랍 사태를 비롯해 ‘전남 농촌문제’ 등에 대해서 소문난 ‘입담’을 과시했다.

그는 목사 신분으로 강연을 하면서 ‘농촌 문제’, ‘시민 의식’ 등 사회적인 현상을 강조한다. “국가가 튼튼해야 종교와 종교인이 바로 선다”는 ‘역사 의식’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의 강연에는 종교인보다 일반인들이 더 많이 찾는다.

이날 강연이 열린 곳도 신안 암태도 등 인근 지역 교인과 주민 2천여 명으로 가득 찼고 2시간 동안 그가 풀어놓은 짜릿한 웃음보따리에 배꼽을 잡았다.

특히 그는 기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농촌에 대한 걱정이 남달랐다.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자기 고장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는 등 ‘농촌 사랑’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 군산이 고향인 장 목사도 어려서부터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접 경험했다.

집안 사정으로 어린 시절 부모의 손에 이끌려 사찰에서 자랐으며, 3만원 짜리 월세방에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생업을 위해 탁구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는 “고향에 온 듯 푸근하지만 갈수록 힘들어지는 농촌을 보면 가슴 아프다. ‘고향을 사랑하는 게 곧 애국이다’는 생각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의 ‘웃기는 재주’는 타고난 게 아니다. 왕성한 독서가 비결이다. 하루 강연 일정만 3~6차례나 되는 빠듯한 일정이지만 일주일에 20권이 넘는 책을 읽는다.

그는 “세상에 웃음을 줄 수 있는 종교를 실천하고 싶어 ‘웃기는 목사’가 됐다”며 “앞으로 공익광고 등을 통해 ‘차신·신호지킴기’ 등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프간 선교 문제점 지적보다 피랍자 무사귀환 힘 모을 때”

“고향을 사랑하는게 곧 애국 세상에 웃음주는 종교 실천”

## 전도연 ‘영향력 있는 여성 50인’에



간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전도연이 미국 버라이어티지가 선정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50인’에 뽑혔다.

지난달 30일 버라이어티지는 2007년 영화, 방송, 출판,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50인을 선정, 공개했다. 전도연은 50명 중 단 4명이 선정된 배우 부문에 엔젤리나 졸리, 헬렌 미렌, 마리옹 코티아르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버라이어티지는 전도연에 대해 “한국의 평론가들은 그를 ‘카멜레온’이라고 부른다”고 소개한 뒤 “5월 칸에서 일렉틀름들이 이창동 감독의 ‘밀양’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미망인 역할을 맡은 전도연에게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시상했다. 이는 황금종려상 이외의 상 중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인정하는 수상 결과였다”고 언급했다.

## 이특의 ‘거짓말 방송’, 중징계 받을 듯

가수 이특의 거짓말로 파문을 빚은 케이블 TV 음악전문채널 Mnet의 ‘스쿨오브라(樂)’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방송위원회 연예오락심의위원회는 2일 오후 ‘스쿨오브라’의 7월30일 방송분을 심의한 결과 제재조치를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9일 프로그램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당 사안은 이영자의 가짜 반지 거짓말 사건과 그 경중에서 비록 차이가 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 거짓으로 꾸민다는 점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특징을 상대로 거짓 사연을 방송한 점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자 거짓이었다고 스스로 밝힌 점 등 두 사안의 내용과 진행경과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월출산에 ‘광주·전남 등산학교’ 문 연다

5~11일까지 정규반·암벽반 운영

허영호씨 ‘해외등반의...’ 등 강의도

지역알파니스트의 산실인 ‘광주·전남 등산학교’가 오는 5일부터 영암 월출산에 개설된다.

광주시학생산악연맹(회장 박상수)과 전남도학생산악연맹(회장 김병대)은 “제 29회 광주·전남 등산학교를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정규반과 암벽반으로 나눠 월출산 일원에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5일부터 8일까지 3박4일 일정의 정규반은 등산에 관한 이론과 스포츠클라이밍, 독도법, 비박과 조난대책, 산사진 및 산노래 등을 중심으로 강의와 실기교육이 진행된다. 첫 날인 5일에는 산악인 허영호씨가 강사로 나서 해외등반의 계획과 실행, 알파니즘의 흐름 등에 대해 안내한다.

또한 암벽반(8~11일)은 암벽이론 및 등반기술, 매듭법, 거벽등반, 확보법 등을 위주로 교육이 실시되며 종합훈련도 병행한다. 이 학교에는 산악회원은 물론 등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상수씨〉 〈김병대씨〉

6~7일간의 장비와 식량을 준비해 5일 정오까지 월출산 인공암장 아영장으로 집결하면 된다. 입교비는 4만원. 신청과 문의는 전남학생산악연맹(061-276-8848)에서 받는다.

광주·전남등산학교는 등산 이론과 실기 교육에서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전국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1979년 한국등산학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열었으며 그동안 히말라야 8,000m급 정점자와 거벽등반가 등 수많은 알파니스트들을 배출했다.



재외동포 차세대 지도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시장 앞 광장을 찾아 태극기와 거주국의 국기를 흔들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재외동포 차세대 지도자, 위안부 할머니 방문

재외동포 차세대 지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방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사료를 둘러보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났다.

모임에는 한국계 최초의 미국 네바다주 하원의원인 프랜시스 오 엘런(여·30)씨, 미국 대형통신업체 버라이즌의 연방정부 담당 부대표인 로비스

트 김선업(41·미국명 마크 김)씨, 한미연합회 부이사장이자 변호사인 김지혜씨, 보스톤 시의원 윤상현씨, 뉴욕의 방송 채널 CW-11의 앵커 장주영씨 등 동포 1.5~2세대들이 참석했다.

**내방**

▲김석현씨(전남남도교육청 부교육감)

## KT전남본부 봉사단, ‘문화재 지키미’ 활동



KT전남본부(본부장 김영권) 사람의 봉사단은 2일 봉사단 자녀들 70여명과 함께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유적지를 둘러보고 쓰레기 수거, 불법 현수막 철거 등 ‘문화재 지키미’ 봉사활동을 벌였다.

## 광주 남부경찰서, 교통질서확립 거리 캠페인



광주 남부경찰서(서장 이윤은) 2일 광주시 남구 백운동 백운 교차로 일대에서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광주남부경찰서 제공>

## 도공 무안영업소, 휴가철 백련축제 홍보 캠페인



한국도로공사 무안영업소(소장 박상수)는 제11회 무안백련축제(4~12일)와 휴가철을 맞아 지난 1일 무안통계이트에서 무안군과 공동으로 축제 홍보를 겸한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 ‘그리운 선생님’ 진도에 계셨네

뇌성마비 정성균씨, 미니 흠피 통해 장애 극복 의지 심어준 은사님 찾아



장애를 딛고 일어난 20대 청년이 어린 시절 자신에게 장애 극복 의지를 심어준 초등학교 은사님을 찾아 나서 결국 재회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뇌성마비 장애 2급인 정성균(28)씨가 애타게 찾았던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남정희(여·57·사진)씨가 현재 진도 석교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재활치료 끝에 휠체어 없이 걷게 될 만큼 장애를 극복해 현재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초등학교 시절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아준 1학년 담임 남씨와 2학년 담임교사 임모(80)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최근 은사를 찾아나섰다.

정씨는 광주시교육청을 통해 남씨는 지난 1999년 광주 대자초교에서, 임씨는 1992년 유안초교에서 각각 퇴직했다는 소식과 함께 퇴직 당시 집주소를 건네받고 동사무소를 찾았으나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그동안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정씨의 1학년 담임교사였던 남씨는 지난 1999년 명예퇴직했으나, 2005년 전남남도교육청 임용시범을 거쳐 다시 교단에 복귀해 석교초등학교 죽림분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 화촉

▲박문규(창신주물㈜ 대표이사) 씨 아들 우석근 광복초씨 딸 재선양=4일(토) 낮 12시30분 프라도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

###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 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이)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

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 보호소 무료 상담=아동 일시 보호원하는 경우.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222-1095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이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사)국제절제협회 광주서부지부 외국인 여성 위한 한글학교 운영=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점심 제공). 한글 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요리 강습을 통한 건

강 및 음식 문화 이해 등. 382-3004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 강의=9월 1일, 8일 오후 2시~5시, 광주대도서관 5층. 음·양택, 수맥, 나경, 지도상명당, 장법요강 등. 문의 011-609-8117, 670-2161

**동창·동문회**

▲광주 사대부중 제 4회 동창회(회장 전성수) 모임=4일(토) 오후 7시 맛갈성. 226-1410

▲광주 지산초교 제 38회 동창회(회장 최중채) 모임=4일(토) 오후 7시 함평전지. 011-620-5729

▲담양 창평중 10회 동창회(회장 신연중) 모임=10일(금) 오후 7시 진가네식당. 011-9602-3000

**모집**

▲아동복지교사 광주지원센터,

이동복지교사 모집=고졸 이상 학습지도 가능자. 문의 262-2780, 3

▲광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무료 훈련생 모집=가사 도우미와 개호 복지사 교육 희망하는 주부 및 고령자. 문의 511-0011~3

▲광주인연맹기학교 차량자원활동가 모집=휠체어 이용 장애아동의 등·하교를 도와줄 차량 자원 활동가 모집. 문의 010-2323-2688

▲민요와 장구 사랑 회원 모집=남도 서도 경기민요를 배울 사람 모집. 사회 봉사 활동에 뜻있는 희망자 환영. 019-601-6989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수지침 요법을 배워 사회 봉사에 참여할 분. 무료. 018-610-3360

▲한미음장애인지원생활센터 활동 보조인 모집=복구 윤남동 체험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2명을 위한 활동보조인 모집. 오전 7시~9시(시간 조정 가능). 문의 431-8025, 010-9881-1276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

전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초·중·고 과정 무료 학생·교사 모집=월~금요일 오후 7시~10시 30분 광주시 동구 계림동 사랑의 교실, 교사 모집(국어·영어·과학·사회·도덕 과정) 223-8529, 011-9712-4316

▲천도교 광주교구 시일식 봉행=매주 일요일 오전11시 광주교당, 천도교 교인 및 동학에 관심있는 분 525-1391

▲인우회 회원모집=광주지역 전·경역 전역자들의 모임, 총무 011-606-7789

▲불림 동호회 ‘다이아몬드’ 회원 모집=30세 이상 부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011-607-0347

▲한국웃음협회 회원모집=건강 회복과 웃음문화 보급을 위한 웃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016-607-1958

▲한국복지재단 전남가정위탁 지원센터 위탁 아동·부모 모집=친부모의 사망·가출 등으로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과 봉사 차원

에서 아동을 양육해 줄 위탁부모 모집 061-279-1225~6

▲종합민요사랑모임 회원 모집=민요를 사랑하며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100원회 회원모집=1월 100원으로 부담없이 이웃 사랑 실천하실 분 011-666-0660

**부음**

▲이승직씨 별세 영혼심(KBC 광주방송 회장)씨 상배 명군(卍사산 대표이사)·창곤(삼양토건 대표이사)씨 모친상=발인 4일(토) 조선대 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220-3352, 605-3003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죽남품특별분양

☎ (062) 521-1100